

Comparative Study on 20C French Fashion and Italian Fashion

Jung, Yu-Kyung* · Chun, Hei-Jung

Seoul Women's University* · Seoul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to study the aesthetic properties of the French and the Italian fashion, the internal fashion content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rance and Italy and based on the definition, the external features are investigated. Firstly, each cultural characteristic was analyzed based on the reference literatures on the French and the Italian culture. Then, 5 designers of each nation were selected and their portfolios have been examined fo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fashions. The criteria for designer selection were that they began their career in 1900's, they are still working actively and that their fame and popularity is worldwide.

As the two major axis of contemporary fashion, the French and Italian fashion's environments and aesthetical properties are not localized in their countries, but have become the aesthetical properties of world fashion, which comprehends the value and ideology modern women are pursuing, as well as the external form which expresses such virtues. Therefore, socio-cultural approach to aesthetical properties of the French and the Italian fashion will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global flow in the fashion. This research will be very helpful to Korea, a nation with a high potential in socio-cultural aspect, to become a leader in the fashion industry. In this study, the internal contents have been defined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rance and Italy,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external forms are analyzed and the aesthetic properties are compared.

Based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rance, the aesthetical properties of the contemporary French fashion can be analyzed as follows: 1) Dualism is the internal contents of the French culture with multiple

sources, and it implies that opposing values such as female and male, traditionalism and modernism, simplicity and decoration are coexisting. 2) The multiculturalism is a mysterious feature that has adapted the oriental or other cultural factors into the forms, patterns, colors and material of costumes. 3) Avant-gardism is pursuing a novel aesthetic value against the former value system. It expresses the futuristic aspect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Italy, examin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background of its culture are: 1) Functionalism is a feature showing the Italian cultural environment where the genuine humanism is retained. 2) Naturalism focuses on the natural beauty of the human body without any artificial forms or exaggerated ornaments. 3) Localism is the expression of folk spirit affect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It expresses local atmosphere by unique craftsmanship in material, pattern, color and details.

Thus, the external features of fashion is mutually related to and expressed with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French fashion tends to represent the intrinsic desire within more complicated structural aspects, while the Italian fashion has functional features reflecting scientific and rational speculations. The expression of intrinsic desire and reflection of rational speculation are the two values representing the modern world. That is the reason France and Italy could distribute their fashion to the world, while bringing their cultural features into relief to stand out in today's world.

20세기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비교 연구

정유경* · 전해정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은 오늘날 일상의 모든 영역을 통해 영향을 얻음으로써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패션은 외형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나타나지만, 내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통해 표출됨으로 함축하고 있는 내적 내용은 특정한 문화적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 본 연구는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통해 복식의 내적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외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프랑스 문화와 이탈리아 문화에 관한 문헌 자료에 근거한 내용 분석적 방법을 통해 각 문화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19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가운데 그 명성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있는 디자이너 5인을 각각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 전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대 패션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패션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의 배경과 추구하는 미의 특성은 비단 한 나라만의 패션 특성이 아닌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념과 이를 표현한 외적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의 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개념의 접근을 통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을 고찰해보는 것은 패션의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문화·예술 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패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는데 본 연구가 보탬이 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내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외적 형식을 분석하여 두 나라의 미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프랑스 문화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프랑스 현대 패션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중성은 프랑스의 이원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내적 내용으로 단순과 장식, 전통과 현대, 여성과 남성의 대립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다문화성은 동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식의 형태·문양·색상·소재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3) 실험성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탈리아 문화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이탈리아 현대 패션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은 가장 순수한 휴머니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입어서 편하고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형태나 인체의 활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소재·디테일을 통해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특성이다. 2) 자연성은 인위적 형태와 과장된 장식을 피하여 인체의 자연미를 강조한 특성이다. 3) 향토성은 지방 특유의 자연과 풍속에 영향을 받은 향토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소재·문양·색채·디테일에 있어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수공예적인 기법에 의해 지역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이와 같이 패션의 외형적 특성은 문화적 특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표현된다. 즉, 프랑스 패션은 다소 복잡한 구조 양상 속에서 내적 욕구를 표출하고자하는 특성이 이탈리아 패션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이탈리아 패션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반영한 기능적 특성이 프랑스 패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내적 욕구의 표출과 합리적 사고의 반영은 오늘날을 대표하는 현대적 가치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상통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다 부각시키면서 그들만의 패션을 세계적인 패션으로 보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